

SK텔레콤, 2020년 연간 실적 발표

**- 매출 18조 6,247억 원, 영업이익 1조 3,493억 원, 순이익 1조 5,005억 원**

**- 미디어보〮안커〮머스 등 New ICT 지속 성장, 영업익 비중 24% 본격 실적 기여**

**- ’21년 매출 19.5조 원 전망…“사상 최초 20조 원 돌파에 도전할 것”**

**- "MNO, AI 기반 구독형 컴퍼니로 진화…원스토어 첫 자회사 IPO 추진"**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퍼런스콜은 금일 오후4시 반 예정이며, 아래 URL 통해 청취 가능합니다.****(국문)** [**http://cast.emodoom.com/webcasting/202101052831201/KO**](http://cast.emodoom.com/webcasting/202101052831201/KO)**(영문)** [**http://cast.emodoom.com/webcasting/202101052831201/EN**](http://cast.emodoom.com/webcasting/202101052831201/EN) |

**[2021. 2. 3]**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은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20년 연간 매출 18조 6,247억 원, 영업이익 1조 3,493억 원, 순이익 1조 5,005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5.0% 성장했다. 미디어와 커머스 등 New ICT 사업은 전년 대비 15.3% 증가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MNO 사업도 5G 가입자 증가로 2.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1.8% 늘었다. 특히 New ICT 사업은 미디어 가입자 증가 및 홈주〮차 등 보안 신규사업과 커머스 거래액 성장을 바탕으로 영업이익이 27.5% 상승했다.

순이익은 SK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으로 전년대비 74.3% 증가해 1조 5,005억원을 기록했다.

SKT는 ‘21년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AI를 도입해 ‘빅테크 기업’으로 진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앱마켓 원스토어는 첫 자회사 IPO를 추진한다. ‘21년 SKT 매출 전망은 19조 5천억원이며, 사상 최초로 20조 원 돌파에 도전한다.

**■ MNO 영업이익 턴어라운드…21년말 5G 가입자 900만명 전망**

SKT의 별도 기준 연간 매출은 5G 가입자 확대와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8% 증가한 11조 7,46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전년 9,518억원 대비 7.5% 늘어난 1조 231억원을 달성하며 턴어라운드했다.

MNO사업은 2020년에도 5G 리더십을 굳건히 했다. 5G 가입자는 2020년 말 기준 약 548만 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말에는 9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MNO는 ICT 멀티플렉스 ‘T팩토리’ 론칭과 24시간 언택트 무인개통 실시 등 팬데믹 상황에 맞춘 다양한 고객 친화적인 마케팅을 전개했다. 이 같은 노력을 기반으로 SKT는 국가고객만족도 23년 연속 1위 등 국내 3대 고객만족도 조사(NCSI, KCSI, KS-SQI)에서 최장 기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MNO사업은 지난해 V컬러링의 성공적 론칭에 이어 올해엔 ‘AI 기반 구독형 컴퍼니’로 진화를 가속화한다. SKT 고객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독형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 New ICT 매출 비중 지속 확대…’빅테크 기업’ 진화 가속화**

2020년은 미디어 등 New ICT 영역의 성과가 돋보였다. New ICT의 영업이익은 총 3,262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19년 14%)에 달해 본격적으로 영업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New ICT 성과의 견인차는 미디어사업이었다.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합병과 IPTV 가입자 증가로 매출 3조 7,13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9.2% 증가한 2,309억원을 달성했다.

보안사업은 출동보안과 정보보안 등 핵심사업과 홈주〮차언〮택트 솔루션 등 신규사업이 고르게 성장하며, 전년 대비 12.2% 증가한 매출 1조 3,386억원을 기록했다.

11번가와 SK스토아 등 커머스 사업은 온라인 쇼핑 활성화 트렌드와 거래액 증가를 기반으로 두자릿수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8,142억원을, 영업이익은 110억원을 기록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티맵모빌리티는 대중교통과 렌터카-차량공유-택시 등을 아우르는 ‘올인원(MaaS, Mobility-as-a-Service) 사업자로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티맵모빌리티는 우버와 택시 호출 공동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JV)을 올 해 상반기 설립할 예정이다.

‘K-앱마켓 대표주자’ 원스토어는 꾸준한 이용자 증가로 10분기 연속 거래액이 상승했으며, ‘20년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원스토어는 올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SKT 자회사 중 처음으로 IPO를 추진한다.

SKT는 지난해 New ICT 영역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티맵 모빌리티 설립 ▲ADT캡스-SK인포섹 합병 추진을 통해 5대 사업부 체제를 구축하고 성장동력을 강화했다. SKT는 ‘21년에도 AI를 바탕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과 초협력을 확대해 ‘빅테크 기업’으로 진화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윤풍영 CFO는 “SK텔레콤은 ‘20년 5대 사업부의 완성과 함께 MNO 및 New ICT 등 모든 사업분야가 고른 성장을 지속했다”며 “’21 년은 AI기반의 빅테크 컴퍼니로의 진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사상 최초 매출 20조 원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문의**

**: SK텔레콤 PR실 오봉주, 박지웅, 우현섭 매니저 (02-6100-5365, 3832, 3854)**

**<끝>**

**※ <첨부1, 2> 연결 손익계산서 요약, 별도 손익계산서 요약**

**<첨부1> 연결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억원)

|  |  |  |
| --- | --- | --- |
| 구분 | 전년 대비(YoY) |  전분기 대비(QoQ) |
| **2020년** | **2019년** | **증감률** | **‘20.4Q** | **‘20.3Q** | **증감률** |
| **매출** | **186,247** | **177,407** | **5.0%** | **48,393** | **47,314** | **2.3%** |
| **영업이익** | **13,493** | **11,082** | **21.8%** | **3,311** | **3,598** | **-7.9%** |
| **순이익** | **15,005** | **8,607** | **74.3%** | **3,710** | **3,922** | **-5.4%** |

**※ IFRS 16 기준**

**<첨부2> 별도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억원)

|  |  |  |
| --- | --- | --- |
| 구분 | 전년 대비(YoY) |  전분기 대비(QoQ) |
| **2020년** | **2019년** | **증감률** | **‘20.4Q** | **‘20.3Q** | **증감률** |
| **매출** | **117,466** | **114,213** | **2.8%** | **29,384** | **29,422** | **-0.1%** |
| **영업이익** | **10,231** | **9,518** | **7.5%** | **2,309** | **2,639** | **-12.5%** |
| **순이익** | **7,588** | **9,799** | **-22.6%** | **300** | **1,562** | **-80.8%** |

**※ IFRS 16 기준**